

메시지 5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하고 건축하기 위해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계속 생활함

성경: 행 1:8, 13-14, 2:16-18, 21, 5:20, 41-42, 6:4, 13:32-34, 16:6-7, 17:16,
19:21, 28:31

- 행 1:8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 1:13-14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매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성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였다. 그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 2:16-18 이것은 신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아들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나의 남녀 노예들 위에 부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 2:21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5:20 “여러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십시오.”라고 하니,
- 5:41-42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 6:4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 13:32-34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이 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더 이상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게 하신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 16:6-7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 17:16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도시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속에서 격분하였다.
- 19:21 이런 일들이 있는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의 영 안에서 작정한 뒤,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 보아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 28:31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I. 사도행전은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 생활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하고 건축하기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었다—행 1:8, 14, 2:14상, 4:10-20, 31-32, 5:20, 38-39, 13:1-4, 26:16-19, 28:31.

- A.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외적인 인간 역사 속에 있는 내재적이고 신성한 역사를 계시하는 요엘서를 인용했다—행 2:17-21, 율 1:1-4, 2:28-32.
- B.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단체적인 나타남과 완전히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 만국이 사모하는 분(학 2:7)으로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분배되시도록, ‘영원의 때로부터 나오셔서’(미 5:2) 시간의 다리를 건너 영원 미래로(시 90:2) 가시는 역사이다.

C. 요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고 복합되신 영의 쏟아 부어짐에 관해 말하는데, 이 영은 오순절날에 부어지셨다. 이 영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의 실재화로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위해 계신다—욥 2:28-29, 행 2:1-4, 16-21, 딤페전 3:15-16.

II. 사도행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서 생활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제시한다.

A. 하나님의 신약 희년에 관한 요엘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는 두 방면이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분의 영을 부으셨고, 우리 편에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에 도달하시고 모든 것을 얻으신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행 2:16-18, 21, 욥 2:28-29, 32상.

1. 인간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성한 역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롬 10:12-13, 엡 3:8, 19, 1:22-23.

2.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신성한 황금 역사 안에 지킨다. 이 역사는 에노스(창 4:26)로부터 시작하여, 구약과 신약을 거쳐 계속되어(욥 12:4, 창 12:8, 26:25, 신 4:7, 삿 15:18, 삼상 12:18, 시 116:4, 13, 17, 80:18, 88:9, 왕상 18:24, 사 12:4, 애 3:55, 57, 시 99:6, 사 55:6, 은 1:6, 왕하 5:11, 사 41:25, 행 2:21, 7:59, 9:14, 21, 22:16, 롬 10:12-13, 고전 1:2, 딤페후 2:22), 성경의 마지막 기도로 마친다(계 22:20).

B. 우리는 신성한 역사 안에 생활하면서 인간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 사람이 모욕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된 존귀이다—행 4:18-20, 29-31, 5:41-42, 9:13-16, 고후 6:4, 11:23, 골 1:24-25.

C.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함으로써 인간 역사 속에서 신성한 역사를 수행한다. 이 이름은 인격과 일에 있어서 주님의 온 존재의 총합의 표현이다—행 9:27, 빌 2:9-11, 살전 2:2, 고후 4:5.

III. 사도행전은 한 몸으로서 살고 움직이고 행함으로 신성한 역사 안에서 생활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제시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한다.

A. 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살고 행동하시고 행하시며 일하시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 자신을 그들 안에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요 12:24.

B. 사복음서는 머리이신 분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몸을 보여 준다. 사도행전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인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영에 의해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행전이다—행 1:14, 2:14상, 42, 9:4-5, 28:13-15.

IV. 사도행전은 자신을 거절하고 또 다른 생명에 의해, 곧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단체적인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A.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이 생명'이 가리키는 생명은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와 위협과 투옥을 이겨 낸 생명이며, 베드로가 전파하고 공급하고 살아 낸 신성한 생명이다. 베드로의 생활과

일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이 그의 상황에서 매우 실지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까지도 그것을 보고 지적했다.

- B. 바울은 (신성한 영과 그의 사람의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된) 그의 영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예수님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살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는 회장(실지적인 지성소인 그의 영) 안에서 살았으며 또한 진영(종교의 인간적인 조직) 밖에서 살았다—행 16:6-7, 17:16, 19:21, 롬 8:16, 딤후 4:22, 고전 6:17, 롬 1:9, 빌 3:3, 히 6:19-20, 13:13.
- C.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살고 우리의 인간 생명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려면, 우리는 주님께 열린 그릇이 되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해야 한다—행 9:15, 고후 4:7, 롬 9:21, 23, 참조 왕하 4:1-6.

V. 사도행전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함으로 신성한 역사 안에서 생활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 이것은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사도의 사역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행 6:4, 히 7:25, 8:1-2.

- A.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하늘들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반영이 된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며,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 기도를 의지한다—행 9:11, 13:1-4, 골 3:1-3, 4:2, 엡 6:18, 단 6:10, 9:2-3, 고전 2:13, 고후 3:6.
- B. 말씀의 사역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명과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유지되어 이 땅에서 그들의 하늘에 속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도록 한다—롬 15:16, 참조 사 50:4-5.

VI.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시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활동들의 실재이심을 보여 주는 시편 68편에 나타난 신성한 역사 안에서 생활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시 68:1, 24.

- A. 우리는 생명을 분배하시고 부어지신 영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매일 두려워 한다—시 68:11-13, 행 2:46-47, 5:42, 16:5, 20:31, 28:30-31.
- B.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 운송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이들의 ‘해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모두가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적어도 백이십 척의 복음 ‘선박’이 오순절날 복음을 확산하기 위해 ‘해변’에서 출항했다—시 68:27, 창 49:13, 행 2:7, 13:31.

VII.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만이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공홀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모든 방면을 가리키는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리고 살고 선포함으로 신성한 역사 안에서 생활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행 13:32-34.

- A.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나시어 다윗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확실한 공홀들이신 하나님의 만이들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행 13:33-35, 사 55:3-4.
- B.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확실한 공홀들을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로 해석하며,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5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만아들이자 거룩한 분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 C. 이것은 또한 확실한 공훈들이 만민에게 증인과 인도자와 명령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이사야 55장 4절로 확증된다.
- D. 하나님의 만아들과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주신 큰 선물이며, 이 선물은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라는 칭호를 갖는다—행 13:33-34.
- E.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신, 공훈들과 축복들,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시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은혜가 되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닌 영원한 언약의 실재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사 42:6하, 55:3, 고전 1:9, 행 13:43.

VIII. 우리가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락방의 헌신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신성한 역사 안에 생활해야 한다—행 1:13-14.

- A.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그의 직업을 버리고 주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락방에서 그는 더 많은 것들을 버렸다—마 4:18-20, 행 1:13-14.
 - 1. 그는 하늘에 속한 이상과 함께 서 있으면서 그의 조상들의 종교를 버렸다.
 - 2. 그는 그의 나라, 그의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그의 친척들을 버렸고, 기꺼이 그의 목숨을 내놓았다.
- B.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은 다락방의 헌신, 우리의 온 존재가 하늘에 속한 이상과 '결혼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다—행 26:19, 1:8, 20:24.
- C.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는 '배수진을 쳐서' 돌아갈 길이 없을 것이다.
- D.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는 우리가 안약이신 기름 바르시는 영을 사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계 3:18.
- E. 주님의 회복의 길을 취하는 것은 값싼 것이 아니다. 이 길은 막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값진 헌신을 요구한다.
- F. 우리는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으며, 회복은 오직 다락방에서의 구체적이고도 비범한 헌신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 G. 다락방에 있었던 백이십 명은 모두 번체가 되었다. 그들은 영 안에서 주님을 위해 불탔고, 신성한 생명의 신성한 불로 다른 사람들도 불태웠다—눅 12:49-50, 행 2:3-4, 롬 12:11.
- H.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지만 그들은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그분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분의 움직임은 다락방에 있었던 이들, 곧 눈이 열리고 마음이 감동된 이들과 함께했다—행 17:6하.
- I. 바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고 시대를 바꿀 것이다. 다락방에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주님, 저는 주님의 증거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다락방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